



‘투수왕국’ 삼성 “뚝어봐” “막아봐” ‘대포군단’ 한화

오늘 한국시리즈 5차전 펜스 거리 긴 잠실구장 삼성에 유리할 듯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브라운

한 방에 강한 ‘대포군단’ 한화가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잠실구장에서 ‘투수왕국’ 삼성의 견고한 방패를 뚫고 대반격에 나설 수 있을까.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3승1패로 앞서 2년 연속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둔 삼성과 베팅 끝에 몰린 한화가 28일 오후 2시 잠실구장에서 5차전을 벌인다.

삼성이 승리하면 시리즈는 막을 내리지만 한화가 기사회생의 1승을 수확한다면 6, 7차전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 양팀은 5차전에 팀 전력을 총가동한다.

양팀은 ‘미니 구장’을 보유했기에 ‘매머드급’의 잠실구장 적응 여부가 승부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잠실구장은 홈플레이트에서 중앙 펜스까지 거리가 125m, 좌우 100m, 펜스 높이 2.6m로 국내 야구장 중 가장 크다. 대구구장(중앙 117m, 좌우 95m, 펜스 높이 3.0m)과 대전구장(중앙 114m, 좌우 98m, 펜스 높이 1.85m)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단 넓은 그라운드에는 투수력이 좋은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투수들이 홈런에 대한 부담이 적어 마음껏 던질 수 있어서다.

올해 정규시즌 팀 방어율이 3.33으로 KIA와 공동 1위였던 삼성은 한국시리즈 4차전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한 싱싱한 어깨의 정상급 투수들을 앞세워 한화의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그러나 한화는 올해 정규시즌 8개 구단 중 가장 많

은 110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장타력을 과시했기에 우승에 9부 능선을 밟은 삼성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특히 홈런 수는 11개로 6개에 그친 삼성을 압도했다. LG와 두산 투수들을 상대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다르지만 한화가 삼성보다 장타력에서는 우위를 보인 건 부정할 수 없다.

배수의 진을 친 한화가 구장의 불리함을 딛고 삼성의 마운드 공략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5차전 승부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5차전에는 삼성의 용병 투수 브라운(29)과 한화의 베테랑 투수 정민철(34)이 선발 투수로 격돌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태균

안방서 빛난 ‘코리안 파워’

김주미 6언더 선두...태극낭자 1~3위 휩쓸어

LPGA 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 1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리안 파워’가 안방에서 열린 LPGA 투어 대회 첫 날 1~3위를 휩쓸며 대회 5회 연속 우승 전망을 환하게 밝혔다.

선두는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 우승자 김주미(22·하이트맥주)다.

김주미는 27일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골프장(파72·6천381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뽑아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작년 이 대회 우승자 이지영(21·하이마트)을 1타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로 나선 김주미는 개막전이었던 SBS오픈 제패 이후 무려 20개 대회만에 우승 기회를 잡았다.

시즌 도중에도 스윙 교정을 계속하느라 우승 이후 ‘톱 10’ 진입이 단 두 차례에 그쳤던 그녀는 “스윙이 많이 좋아져 이번 대회에서는

또 한번 우승 욕심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10번홀(파5)에서 시작한 김주미는 첫홀부터 버디를 잡아내며 기분 좋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16번홀(파4)에서 1타를 더 줄인 김주미는 1번홀(파4) 버디에 이어 6번홀(파4)에서 행운의 이글을 뽑아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319야드의 6번홀에서 60야드를 남기고 60도 웨지로 친 두번째샷이 홀에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신바람이 난 김주미는 8번홀(파5)에서도 가볍게 버디를 보며 단독 선두로 경기를 끝냈다. 보기는 단 1개도 없는 완벽한 플레이였다.

작년 이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해 LPGA 투어 직행 티켓을 손에 넣은 이지영은 전반 9개홀 동안 버디 3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는 어수선한 경기를 펼쳤지만 10번홀부터 후반 9개홀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챙겨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타이틀 방어에 청신호를 쳤다.

이지영은 “여제까지 퍼팅 감각이 무뎠

거였는데 이번에 이르러 잘 됐다”면서 “타이틀 방어에 욕심내지 않고 그동안 미국에서 갖고 닦았던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이겠다”고 말했다.

6명이 포진한 공동 3위에 도 ‘코리안 파워’가 3명이나 자리를 잡았다.

5일 전 혼다 LPGA타일랜드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컵을 안고 돌아온 한희원(28·힐라코리아)은 한때 단독 선두를 달렸으나 7번홀(파3)에서 세 번 만에 그린에 불을 올린 바람에 2타를 잃어 4언더파 68타로 어렵게 3위그룹으로 밀렸다.

그러나 한희원은 태국 대회 우승을 일궈냈을 때 보여줬던 절정의 아이언샷 감각이 그대로 살아 있어 2주 연속 우승과 시즌 3승 가능성을 높였다.

장정(26·기업은행)도 보기없이 4개의 버디를 뽑아내는 깔끔한 경기로 공동 3위에 올랐고 올해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SK인비테이션에서 우승한 홍진주(23·이동수패션) 역시 68타를 때려 안시현(22), 이지영에 이어 이 대회 출신 세번째 ‘신데렐라’ 탄생을 예고했다.

정일미(34·기가골프)와 아마추어 허미정(대전체고)이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9위, 김미현(29·KTF)과 박희정(25·CJ)은 2언더파 70타로 공동 12위에 올라 선두권 추격의 디딤돌을 놓았다.

그러나 2년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한 박세리(29·CJ)는 버디 1개와 보기 3개로 2오버파 74타에 그쳤고 박세리와 동반 라운드를 치른 한국여자프로골프 ‘슈퍼투키’ 신지애(18·하이마트)도 이븐파 72타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세컨샷하는 김주미

27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열린 LPGA 코오롱-하나은행 챔피언십 1라운드 9번홀에서 김주미가 세컨샷을 하고 있다. /연필뉴스

니혼햄 44년만에 일본시리즈 제패

니혼햄 파이더스가 1962년 이후 44년 만에 일본프로야구 최정상에 올랐다.

퍼시픽리그 우승팀인 니혼햄은 26일 삿포로돔에서 벌어진 일본시리즈 5차전에서 용병 세기들의 투런포와 선발 다르릿슈유의 7 1/2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센트럴리그 챔피언 주니치 드래곤스를 4-1로 누르고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일본시리즈를 제패했다.

지난 1962년 처음으로 일본 정상에 오른 니혼햄은 이로써 통산 두 번째 우승의 감격을 맛보며 내달 9일 일본 도쿄돔에서 벌어지는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에 일본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카디널스 3승 1패 “1승 남았다”

미국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에 1승을 남겨뒀다.

세인트루이스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뉴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 4차전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 5-4로 승리했다.

이로써 세인트루이스는 3승1패로 앞서 1승을 보태면 1982년 이후 24년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에 선다.

세인트루이스의 1번 타자 데이비드 엔스타인은 결승타를 포함해 5타수 4안타, 2타점, 1득점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5차전에는 저스틴 벨랜더(디트로이트)와 제프 워버(세인트루이스)가 선발투수로 대결한다.



28일(토)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5차전(디트로이트-세인트루이스)(08 : 50·Xports)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삼성-한화)(13 : 50·MBC)
▲프로농구(모비스-전주랜즈)(14 : 50·Xports), (오리온스-SK)(14 : 50·SBS스포츠)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포츠머스-레딩)(23 : 00·MBC ESPN)
29일(일)
▲피스퀀팅 국제여자축구(한국-브라질)(00 : 55·MBC ESPN)
▲06/07 이탈리아 세리에 A 축구(AC 밀란-인테르밀란)(03 : 30·KBS SKY SPORTS)
▲K-리그(포항-수원)(14 : 50·SBS스포츠), (15 : 00·KBS SKY SPORTS)
▲AFC 청소년 축구 선수권(한국-요르단)(19 : 20·Xports, 19 : 55·SBS스포츠)

최경주 공동 7위 ‘굿 스타트’

PGA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첫 날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첫 날 공동 7위의 좋은 성적을 냈다.

최경주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베이 웨스턴인니스브룩골프장(파71, 7천295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선두 브라이언 게이(미국·64타)에 4타 뒤진 공동 7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첫홀(파5)에서 기본 좋은 버디를 낚아챈 뒤 11번홀(파5)과 17번홀(파3)에서도 버디를 추가,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속아내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쳤다.

선두에 4타를 뒤졌지만 일단 첫날 톱10에 진입, 우승 가시권에 들었다.

최경주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 랭킹 30위 안에 들어 시즌 최종전인 투어챔피언십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최재호(34·기아골프)와 아마추어 허미정(대전체고)이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9위, 김미현(29·KTF)과 박희정(25·CJ)은 2언더파 70타로 공동 12위에 올라 선두권 추격의 디딤돌을 놓았다.

그러나 2년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한 박세리(29·CJ)는 버디 1개와 보기 3개로 2오버파 74타에 그쳤고 박세리와 동반 라운드를 치른 한국여자프로골프 ‘슈퍼투키’ 신지애(18·하이마트)도 이븐파 72타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라이언킹 이동국, 너를 기다렸다

내일 포항-수원전 출전 가능성

29일 포항 전용구장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K-리그 포항-수원전은 월드컵 비운의 스트라이커 라이언킹 이동국의 컴백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의 파리아스 감독은 아직 라인업을 짜지 않았다. 하지만 선발은 아니더라도 교체 멤버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국은 지난 주부터 팀에 합류해 발을 맞춰왔다. 포항 구단은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다. 성실하게 재활을 해왔고 본인의 출전 의지도 강하다”고 말했다.

이동국은 지난 4월5일 인천과 홈 경기에서 무릎이 꺾이면서 쓰러졌다. 그리고는 그토록 열망했던 독일월드컵 출전 꿈을 접고 독일에서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다. 29일 홈 경기에 출전한다면 6개월여 만의 컴백이다.

파리아스 감독은 이미 티켓을 확보한 만큼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에 대비해 이동국을 무리해서 뛰게 할 생각은 없지만 실전 감각을 되찾아주는 차원에서 15분 정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경기는 미리보는 플레이오프다. 현재 순위가 그대로 굳혀지면 다음 달 11일과 12일 열리는 4강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는 성남-서울, 수원-포항의 맞대결로 압축된다.



하이젠 KBO 2006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